

해남 달마고도서 오는 28일 걷기축제



생동하는 봄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곳. 땅끝 해남의 달마고도(達磨古道)에서 걷기축제가 열린다. 해남군은 오는 28일 송지면 달마산 미항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제1회 달마고도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달마고도는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해남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이다. 본래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계를 쓰지 않고 돌 하나하나를

송지면 달마산 미항사·달마고도 일원
명상 음악회·각종 체험 행사 등 다채

지개로 날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며, 공룡의 등뼈같은 바위암릉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앞으로는 다도해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땅끝 사람들이 장에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옛길이자 달마산 12개 암자를 잇는 수행의 길을 새로 단장해 지난해 11월 개통했다. 이번 걷기 축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걷기행사와 함께 명상 음악회, 숲속 음악회, 각종 체험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계획이다. 주 행사는 달마고도 1~3코스 13km와 1코스를 왕복하는 5.4km에서 걷기 행사가 개최된다.

숲길을 걷는 동안 우쿨렐레, 색소폰 등을 연주하는 숲속 음악회와 도보여행 전문가의 강연회 등도 만날 수 있다. 또 미항사에서는 국악밴드와 성악가, 가수 신현대씨가 참여하는 명상음악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을 위한 즉석 사진 촬영과 사진 인화 이벤트, 소원 실팔찌 만들기, 부채 만들기, 금강 스님과 함께 하는 손글씨 써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이번 걷기 축제는 2018 봄 우리나라 걷기 여행축제의 일환으로 해남군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한다.



강진군 작전면 내동마을은 지난 2016년 느티나무 1그루를 V-랜드에 기증 한 후 올해 또 단풍나무 1주를 석문공원에 기증했다. 사계절 석문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늘을 제공,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민이 함께하는 숲속의 전남만들기 신전면 임천규·망호마을 박종기·군동 자비사 등 수목 기증

전남도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가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전남 곳곳에 변화가 일고 있다. 강진군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한창이다. 강진군은 지난해 칠량농공단지 개소 외 병영 솔밭공원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해 올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군민들도 숲속에 전남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벌써 시작한 수목기증 열풍이 올해 더욱 힘찬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도암면 망호마을 임규와 해안도로 내 배롱나무 200여 그루가 심어졌다. 망호마을 박종기 이장은 그간 정성껏 키운 배롱나무를 기증했다. 가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꽃피는 경관을 제공하고자 직접 배롱나무를 심어 지역민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다. 작전 내동마을은 지난 2016년 느티나무 1그루를 V-랜드에 기증 한 후 올해 또 단풍나무 1주를 석문공원에 기증했다. 사계절 석문공원에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늘을 제공,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군동면 자비사는 군청 및 영랑생가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관광객들에게 한 여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팽나무 1주를 강진군청에 기증했다. 이어 신전면 임천규씨가 동백, 가이즈카향나무, 유자나무 등 총 100여 그루 약 3천만원에 달하는 수목을 기증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강진군은 동백과 종려나무를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경관개선 효과를 위해 심었다. 2019년 착수 예정인 강진만 정원(다산원)에 이용하기 위해 유자나무, 단풍나무 등을 대규격 정지촌 균주지로 이식해 놓았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지금까지 기증받은 수목이 약 4천500여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누릴 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어 너무 뿌듯하다"고 전하였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 2018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재배지 및 밀경작 우리지역 광주시방검찰청과 7개 시·군 합동 단속

곡성군은 2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광주시방검찰청과 7개 시·군이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자, 밀매 및 공급사범 등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은 폐된 장소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과 그 목적을 불

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광주시방검찰청, 곡성군보건의로원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 더 신나게 즐기자

내달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최우수 축제에 빛나는 '담양대나무축제'가 화려한 변신을 예고했다.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을 준비해 축제의 재미와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는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는 축죽놀이 및 관방제일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5월 2일 저녁 7시에는 '내소향기 천년을 품다'라는 축제 주제와 담양대나무축제의 의미를 부여한 퍼포먼스 개막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열리는 'KBC축하공연'에는 가수 홍진영, 조항조 씨를 비롯 다수의 가수가

출연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저녁 6시 30분부터 주무대(종합체육관 주차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5월 3일에는 배우 겸 가수인 김성환 씨가 출연하는 '트로트 공연을 선보이고, 5월 5일에는 가수 춘자, 김성수 씨가 DJ로 출연해 흥을 돋우고 맥주를 무료로 즐기는 환상적인 EDM에너지 콘서트를 연다. 담양대나무축제 밤의 열기는 마지막 날인 5월 7일 저녁 6시 전남도립국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대나무 소망배 승전식, EDM파티(DJ와 댄스부름)까지 이어지며 대나무축제 폐막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영암군, 군 단위 최초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

영암군이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구제 업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영암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2월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고 지난 3월 23일 군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본청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

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전동영 영암군수는 "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역력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펼쳐

목포시가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펼친다. 시는 24일 '청년과 함께, 청년의 행복을 캐치프레이즈로 '제1기 목포시 청년 동행(同行·同華)' 발대식을 개최했다. '목포시 청년 동행'은 청년의 현실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모임으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넘치는 청년 50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은 청년 동행 위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촉장 전달, 청년 동행 운영계획 설명, 시장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제안된 정책들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부서의 검토와 시행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된다.

목포=김영일 기자

◆ 광주시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회소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